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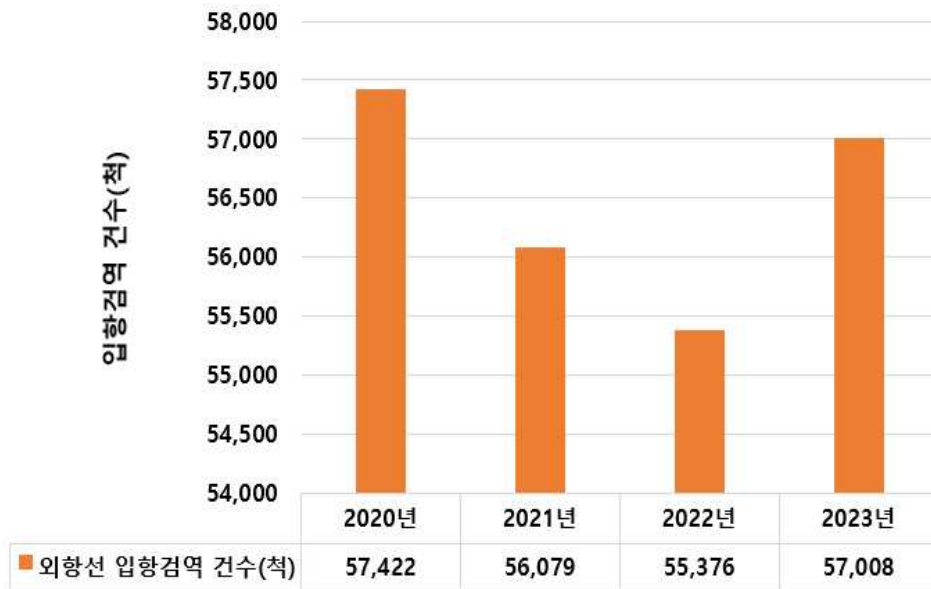
[2024년 질병관리청 민생정책 100% 활용하기]

'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, 항만·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

- '23년 57,008척 외항선 검역으로 '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처음 반등
- 승선검역 '20년 이후 하락하다 '23년 반등, 승선검역 중 빈대 2건 발견('23.11.)
- '23년 이후 여객선, 크루즈 등 운항 정상화로 관광 목적 여객 증가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,008척으로, 코로나19 발생 이후 '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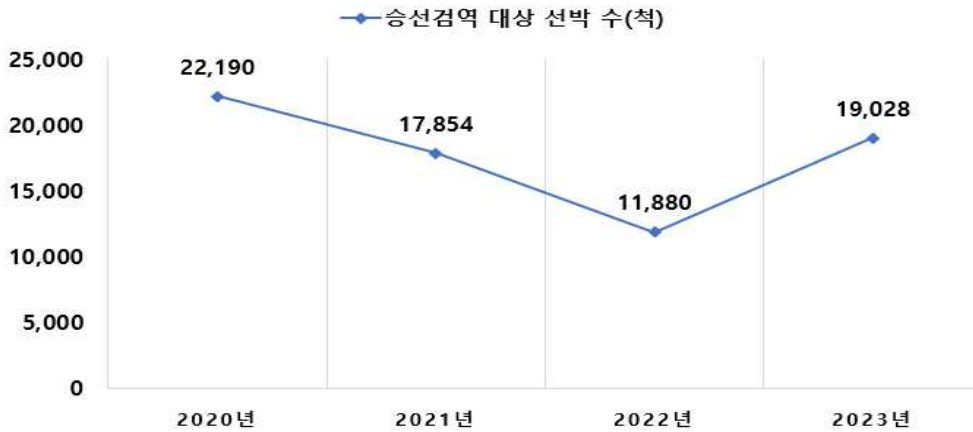
최근 4년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(척)



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인 바,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(환자나 사망자,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)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(22,190척) 이후 하락하다가, 2023년 19,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, '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한 바 있다.

최근 4년간 승선검역 대상 선박 수(척)



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,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·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또한 '22년 11월 이후 부산, 동해, 인천, 군산, 평택 등에서 한-일, 한-러, 한-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, 중단되었던 크루즈 입항도 '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”면서,

“동시에 국제보건규칙(IHR)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,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,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감염병위기대응국	책임자	과 장	신재귀 (043-719-9200)
<총괄>	검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진욱 (043-719-9218)